

# 날씨와 기후를 오감으로 즐기는 기상과학관

- 기상과학 문화공간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9월 21일(목) 오후 3시에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의 첫출발을 알리는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에는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일수 충남도 부교육감 등 센터 건립 주요 인사들과 관계 기관 직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날씨부터 기후변화까지 기상과학에 대한 지식을 체험을 통해 전달하고, 기상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개관된 기상과학관이다. 충남지역의 기상과학관 접근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와의 협업하여 2018년 설계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단로 일원 19,138㎡의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올해 1월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운전 및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하게 되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최신 기술과 기상과학이 융합된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이 있는 내부 전시관과 기상관측장비를 관람하며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야외전시장, 친환경 자가발전 놀이기구가 설치된 기후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교육들은 시범운영 기간에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지역민 가까이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오감으로 기상·기후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적인 기상과학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사진  
2.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현황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유민수 (042-363-3540)
		담당자	주무관	김정수 (041-921-2880)



유희동 기상청장 기념사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 테이프 커팅식  
 (왼쪽부터 박경희 대전기상청장, 조광희 홍성부군수, 유희동 기상청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일수  
 충남부교육감, 이상근 충남도의회의원)

□ **일반현황**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로 15
- 사업예산/기간: 110억원/2018.12. ~ 2023.1. (총 4년)
- 부지면적: 19,138㎡(지상권 30년, 충청남도 부지 제공)
- 연 면 적: 2,637.9㎡(지하1층, 지상 2층)
- 전시면적: 내부 919.3㎡(전시실 805.5㎡/체험실 113.6㎡), 야외 4,794㎡

□ **주요 시설**

구분		주요 시설
내부	1층	(전시) 한반도의 사계(한반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한반도의 기후환경(비의정원, 용오름) (편의) 편의물품(휠체어, 유모차), 수유실 물품보관함
	2층	(전시) 한반도의 기후환경(태풍갤러리, 바람과 지형, 안개의 숲) 서해안기상센터(일기예보 체험, 캐스터 체험) 기후변화탐험(기후변화탐사선, 지구기후회복센터 등) (편의) 북카페, 메시지월, VR포토존
야외	전시	야외전시물(역사, 지상, 해양, 위성, 재생에너지 등)
	시설	기후놀이터, 주차장(50대)

□ **추진 경과**

- 지자체 부지사용을 위한 지상권설정 협약 체결('18.10. 기상청-충남도)
- 건물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8.12.~'19.12.)
- 건축 및 전시사업 추진
  - 건축: 설계('18.12.~'19.12.), 착공('20.9.), 완공('21.11.)
  - 내부전시: 설계('20.10.~'21.3.), 납품완료('22.9.30.), 시운전('22.10.8.~'23.2.7.)
  - 야외전시: 설계('22.8.~11.), 납품완료('22.12.25), 시운전('23.1.2.~1.31.)
-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시범운영('23.7.~8.)